

보도일시	2025. 05. 16. (금요일)		
위원회명	기후위기대응위원회	위원장	위성곤 위원장
담당자	이우형 비서관 / 02-784-6450	E-mail	wishjeju@daum.net

민주당 기후대응위,

“취약계층 아동 기후위기 사각지대 없애야”

- 민주당 기후위기대응위원회, 월드비전 아동권리대표단과 간담회 진행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선거대책위원회 이재명 후보 직속 기후위기대응위원회(위원장 위성곤·위진, 이하 ‘기후위’)는 지난 15일(목),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기후위기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7대 정책 제안을 전달받았다.

이번 간담회에는 기후위 위진 위원장과 김정옥 수석부위원장이 참석해, 월드비전 아동권리대표단 및 정책제안 실무진으로부터 제안을 공식 접수하고 아동당사자들과 직접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월드비전은 ▲전국 단위 실태조사 실시 및 맞춤형 대책 수립 ▲지원 전달체계 개선 및 공공-민간 협력체계 구축 ▲주거지 개선 및 이전 지원 확대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및 냉난방비 종합 지원 체계 마련 ▲물가 반영 급식 지원 확대 및 사육처 개선 ▲기후 관련 아동 질병 치료비 지원 및 건강 격차 해소 ▲기후 우울·트라우마 심리상담 확대 등 7대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기후위는 “기후위기의 영향은 특정 지역이나 세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며, 그중에서도 취약계층 아동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다.” 며 “그럼에도 현재 복지제도는 이러한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각지대와 복잡한 절차에 대한 문제의식에 깊이 공감한다.” 고 밝혔다.

이어 “기후우울 등 정서적 피해에 대해서도 사회와 교육기관이 제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하며,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이를 반영한 아동 중심의 기후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덧붙였다. /끝/



<사진> 2025. 05. 15. 월드비전-기후위기대응위원회 기후취약계층을 위한 7대 정책제안 전달 간담회